



가금티푸스, 육계농장 상륙 비상!

◇ 취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1. 육계농장에 피해 확산

가금티푸스는 지금까지 채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육계 실용계농장에 가금티푸스가 확산되어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제부터는 육계농장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질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 1992년 산란계를 중심으로 국내에 처음 발병하기 시작한 가금티푸스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너무나 다양하고, 큰 규모로 전국의 각 농장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에서도 가금티푸스의 특별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항생제와 기타 보조사료 등에 얽매어 치료를 해왔는가 하면 일부농장에서는 굶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애피소드까지 남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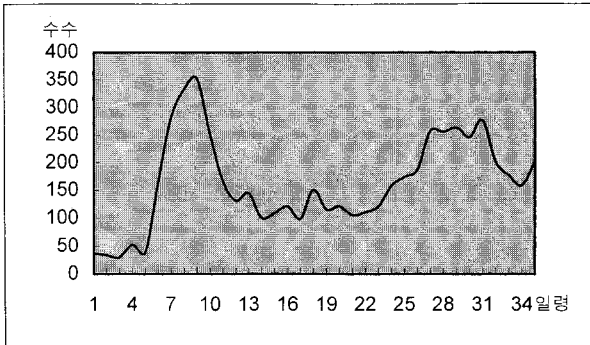
당시 연구기관에서는 육계와 종계, 특히 백색계는 감수성이 없는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나 채란계(유색계)만을 위주로한 연구와 백신 개발·도입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산란계는 어느정도 가금티푸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의 육계 질병 발생 상황을 보면 어느 육계인이 언급했듯이 '질병백화점'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금티푸스는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황사는 물론 심한 일기변화, 강한 바람 등으로 질병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하루하루 노심초사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2. 질병피해 농장

기자가 방문한 지역은 논산, 공주, 부여 지역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일반유통이나 계열업체를 통한 계약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육계사육이 집중되어있는 전라도와 경기도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전국의 질병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도표1〉 가야농장의 가금티푸스 발생에 따른 폐사현황
(18,900 수 입추 계군, 30% 폐사)

이 지역의 최근 질병상황을 보면 가금티푸스로 의심되는 질병이 나타나는 농가들이 간혹 있는 반면, IB, ND, ORT, AI 등 질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폐사를 유발하고 있어 전국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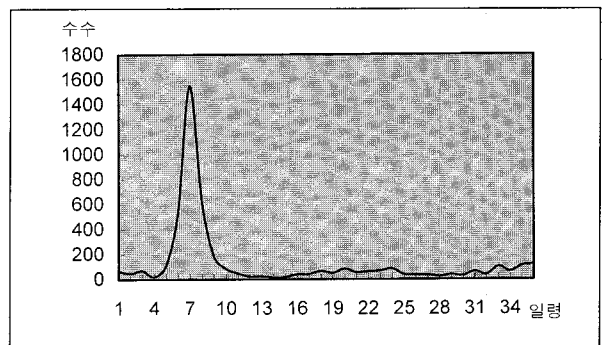
가금티푸스에 발병된 농장중 첫번째 방문한 곳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가야농장이다.

1987년부터 충남 논산군 가야곡에서 양계업을 해오고 있는 정운광씨는 지난해 12월 28일 18,900수를 입추시켜 가금티푸스 발생으로 인해 5,737수(폐사율 30%)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정사장은 모계열업체로부터 병아리를 받아 입추시킨 후 4일령부터 폐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인근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한 바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대장균증으로 판정을 내려주면서도 가금티푸스에 맞는 처방을 알려주었다. 6일령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폐사는 9일령에 가장 심하였고, 항생제, 영양제, 스트레스제제를 투약하며, 다소 진정을 보였으나 25일 이후부터 다시 폐사가 발생하면서 35일령에 1.33kg, 사료요구율 2.24를 기록하며 출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8일령 이후 폐사

가 심해지면서 계열업체에 항의전화를 한 결과 폐사원인이 가금티푸스인 것을 시인하면서 출하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니 사양관리만 잘 하라는 답변을 받고 출하때까지 2배 이상의 약값을 들여가며 출하를 한 바 있다. 계열업체에서는 이미 티푸스에 감염된 병아리인줄 알면서 분양을 하였던 것이다.

정사장은 다행히 계열업체에서 미리 인정을 한 결과 만족하지는 않지만 폐사병아리, 사료 등의 보상을 조건으로 사육수수료를 400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태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변에서 같은 계군을 받은 타 농가의 경우 가금티푸스로 50%이상의 폐사를 본데다 타 유통을 끼고 병아리를 받은 관계로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컸던 사례들이 많았음을 설명하였다.

두번째 방문한 농장은 공주시 계룡면에 위치한 월곡농장으로 4개동에서 5만수규모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계룡면은 본래 청정지역으로 질병과는 인연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2년전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들관한가운데 계사를 마련하여 5만수 계군을 관리하고 있는 조성호 씨 부부는 '요즘 갈아서는



〈도표2〉 월곡농장의 가금티푸스 발생에 따른 폐사현황
(12,000수 입추 계군, 39% 폐사)

양계를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심정을 호소하면서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질병이라면 끔찍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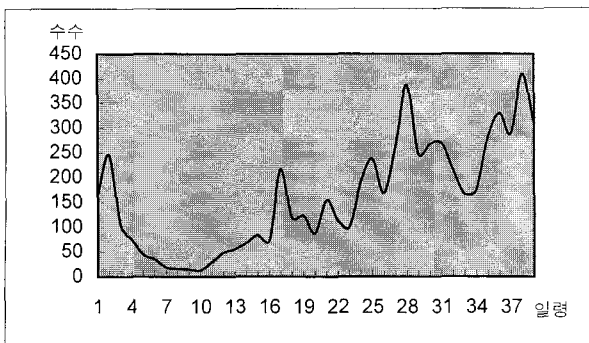
조 사장은 모 유통을 통해 12월 17일 받은 병아리가 티푸스 계군이라는 것을 5일령부터 폐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알게되었고, 7일령에는 12,000수 계군에서 1,550수가 폐사하는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타격을 주었다. 주변 수의사 및 컨설턴트에게 항생제, 활력보강제 등의 처방을 받은 이후 폐사가 줄어 36일령에 39%(폐사수 4,726수)의 폐사율을 보이면서 출하한 경험이 있다. 이번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병아리를 받은 유통에서 감안을 해주었지만 마음을 줄여가며 헛고생을 했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세번째 방문한 농장은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에서 3만수 규모를 관리하고 있는 오일석(그린농장)씨 농장이다. 오사장은 지난 1976년부터 부화장, 종계장, 육계 컨설팅 분야에 종사한 적도 있으나 지난 2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오사장은 모 부화장에서 12,000수 한동과 D유통을 통해 19,500



▲가금티푸스 피해를 입었던 오일석 사장이 다음 계군을 받기 위해 입추준비에 여념이 없다.

수를 3개동에 나누어 12월 10일 입추시켰다. 대한농장에서 병아리를 받을 당시 티푸스 감염계군이라는 것을 일찍 알게 되었다. 당시는 티푸스에 감염된 병아리들이 많았고, 농가 입장에서는 병아리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받는 농가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받은 계군을 뒤돌릴 수는 없는 문제로 그 동안의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티푸스와 싸우기로 결심하였다. 유통회사와도 피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균 수준으로는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터라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1일령에 입추시킨 병아리를 보니 상태가 몹시 심각했다. 또한 첫날 폐사만 해도 161수가 쏟아져 나왔다. 우선적으로 전수를 대상으로 ND, IB 혼합백신을 점안하는 한편, 영양제와 대사촉진제 등으로 처리를 하고, 3일령부터는 항균제, 항생제는 물론 활력증강제, 영양제 등을 투약하였다. 그 결과 5일령부터 폐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항병력 강화제제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겨울계군이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호흡기 제제까지 함께 써가며 버텼으나 15



〈도표3〉 그린농장의 가금티푸스 발생에 따른 폐사현황 (31,500수 입추 계군, 20% 폐사)

일령부터 본격적으로 폐사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살모넬라 제제(항생제)를 4~5일 간격으로 투약을 하였고, 음수소독 네차례, 분무소독 한차례로 총 다섯차례를 실시하는 등 질병과의 싸움이 끝날줄을 몰랐다. 출하전까지 저혈당증, IB, 대장균까지 감염되면서 항생제는 물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양제 또는 활력보강제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항생제도 주기적으로 투약을 하였다. 결국, 39일만에 평균중량 1.59kg, 사료요구율 2.2를 기록하며, 72%의 출하율을 보였다. 오사장이 사용한 약품비만 해도 평소의 3배가 넘는 460만원이 쓰여졌다. 폐사는 20%(폐사수 6,206수)밖에 나지 않았으나 출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체중미달인 닭들이 2,500수에 달하여 모두 폐기처분시키기도 하였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70% 이상의 출하율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닭을 길러온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다. 다행히 유통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결과 사육수수료를 수당 140원을 주고, 사료비와 병아리 가격을 변상시켜주는 조건으로 처리되었다. 오사장은 겨울철 연료비와 평소보다 3배 높게 지불한 약품비를 반영시키는데는 실패했지만 티푸스라는 질병이 육계농장에 어느정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음을 회고하였다. 다행히 피해사례들이 많아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육계인들이 서로 뭉친다면 육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부화장에서는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반드시 부착하여 출하 해야하고 농가에

서는 이러한 병아리를 받도록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절실함을 지적하였다.

3. 건전한 병아리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

육계농장에서는 질병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 날을 기다리면서도 정성스레 닭들을 관리하기에 여념이 없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해마다 질병의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동물약품 판매현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제제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계농장에서 가금티푸스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실용계농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병아리에 원인이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가금티푸스는 난계대 질병이므로 종계로부터 감염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증상과 폐사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병아리 가격이 지난해부터 고가를 유지하면서 공급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환우는 물론 위탁사육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어 종계장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용종계 관련인들은 실용계 농장에서는 닭들의 폐사원인을 첫째 병아리, 둘째 사료 등으로 규정짓고 있는데, 농장의 환경과 사양관리도 이에 못지 않은 중요사항이므로 종계장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환경이 열악한 육계농가들이 많

표1. 년도별 동물약품 판매현황 비교(1~2월 판매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999	2000(증감율%)	2001(증감율%)	2002(증감율%)
백신제제	4,527,189	6,570,923(32)	7,870,143(17)	9,988,077(21)
호흡기제제	146,527	124,758(-17)	126,841(2)	136,585(7)

으며, 사양관리면에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분야가 아닌 포괄적인 범위에서 질병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수의사들의 입장을 보면 현재는 육계농장에서 가금티푸스 대책으로 3~4일마다 항생제를 투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과거 채란계에서 10여년 전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내성이 생길 경우 이 방법도 머지않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따라서 종계장에서 티푸스 백신사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의견까지 제시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종계장과 백신미 생산 종계에서 티푸스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살처분보상 문제, 추백리 문제 등이 겹쳐 종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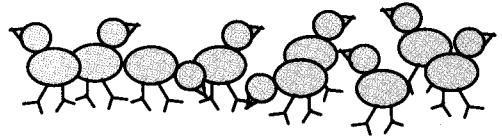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전한 병아리가 유통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농가에서는 병성감정 및 병아리역 가검사 등이 기록된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아리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하며, 부화장에서도 이러한 병아리를 불법적으로 유통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농장에서는 감염매개체인 쥐, 닭이 등의 박멸에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도 차량이나 사람의 농장내 출입을 철저히 감시하여 차단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돼지에서의 돈콜레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듯이 우리 양계업도 한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농장부터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서 양계인들이 한 마음이되어 공동방역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양계**

종계를 강제환우하면...

종계를 더욱 장기간 사용하여 환우 후 초생추의 생산원가를 150원까지 절감할 수는 있으나 ...

생산되는 초생추의 가금티푸스 양성율이 높아지고

식란의 살모넬라 오염율을 높입니다.



강제환우하지 않는 부화장...

다음 부화장에서는 종계를 강제환우 하지 않습니다.

△ 대구경북양계축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봉산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신진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양지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 한양부화장 - 하이라인 브라운 생산



Hy-Line®